

익산 송학동·인화동 일원 '마을살리기' 본격화

시, 총사업비 352억원 투입 도시재생사업 추진 생활 SOC복합시설 확충·공동체텃밭 등 조성

익산시는 송학동 KTX익산역 서편과 인화동 남부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곳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이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송학동의 경우 지난 1월 도시재생사업 승인·고시가 완료됐으며, 인화동 남부시장 일원은 전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께에 고시될 예정이다.

송학동 KTX익산역 서편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352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67억원, LH 185억원)이 투입돼 생활 SOC복합시설의 확충, 공동체 일자리 플랫폼 조성,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자연순

환형 공동체텃밭 조성 등을 통해 낙후된 마을 살리기에 나선다.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80호와 실버안심주택 45호를 건립해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총 142억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 조성, 솔리마을 노후점포 리모델링 등 사업이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 지역의 근대건축물 등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해 뉴딜사업과 역사문

화자산의 상호 시너지 창출, 남부시장·한복거리·구시장길 활력 회복, 노후화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밀착형 교육·문화·복지거점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송학동과 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활기차게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행복의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조감도.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준공

고창군은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을 준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조성된 유스호스텔은 관리동 1동과 숙박동 6동 12객실로 이뤄져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습지와 저수지·용계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에 자리해 생태와 힐링·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잔디광장과 족구장, 세미나실을 갖춰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대학생들의 MT는 물론 가족 단위 휴양객이 머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객실은 운곡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으며, 편백나무 원목과 모노톤의 원목을 사용해 아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다. 유스호스텔은 시범운영 기간 숙박료 5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곡습지 유스호스텔과 고창군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친 도시 생활을 잊고 편안한 힐링 여행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은 지난 2013년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고인동·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운곡습지는 봄철 산벚꽃과 물안개가 어우러져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은 2015년 1만7844명에서 2018년 2만4844명으로 39.2%, 지역주민 소득은 같은 기간 1억72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9.8% 증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향교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원제를 개최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라"

남원향교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정치권 국회 앞서 기원제 "역학조사관 키워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예방·사전 대비를"

남원향교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남원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법대책임위원회(이하 공공의대 법대책임위)와 남원향교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남원향교와 공공의대 법대책임위, 남원시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36개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

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이원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사를 낭독하며 뜻을 모았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전북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배출·공급을 위해서도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공공의대 법대책임 위 대표는 "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과 같은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법대책임 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지방의료 취약지역 주민 대규모 항의집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향기나는 '정읍만들기' 시민정원사 50명 모집

정읍시가 지역 내 꽃과 나무를 가꾸 향기로운 정읍 만들기에 함께할 '시민정원사'를 모집한다.

정읍시는 오는 26일까지 제2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의 녹화의식을 길러 지역 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향기 정읍 만들기를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모집대상은 교육 무료 후 정읍시 녹지관리 분야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정읍 시민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솔티마을에 위치한 정원문화포럼인 꽃담원에서 평일반(금요일 오후1시~5시)과 주말반(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으로 나눠 25명씩 각 20주 차종 8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확장 사업 추진

군산시가 군경합동묘역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매년 안장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군경합동묘지 안장 기수가 836기로, 잔여기수가 164기에 그쳐 앞으로 4~5년 내 만장이 예측돼 안장수급 대응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은 총 사

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묘역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때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주민·유공자·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군경합동묘지 확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발효미생물 캐릭터·이모티콘 개발

순창군은 발효미생물을 상징하는 캐릭터(사진) 10종을 개발했다.

순창군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동안 고추장과 청국장 등에서 추출한 황궁고, 고추군, 유산균, 효모균 등 토착미생물을 형상화한 발효미생물 캐릭터를 만들었다.

캐릭터는 '발효 in 순창왕국'을 주제로 한 고추장 국왕과 궁주, 기사단, 마법사 등이다.

순창군은 이들 캐릭터에 환영인사, 축



하 등을 표현한 모바일 이모티콘 20종도 개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